

《커피 이야기》

삶을 변화시킨 커피 농사꾼들의 꿈 이야기

글_장동석 기자

그곳을 여행해 본 일이 없으니 정확히 알 길은 없으나, 도미니카공화국을 비롯한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손님, 특히 이방인들에게 ‘까페씨또’(작은 잔에 담아내는 풍부하고 깊은 맛의 진한 커피)를 대접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한다. 아! 그러나 중앙아메리카를 여행하더라도 난 그 전통을 몸으로는 체험할 수 없을 듯하다. 커피만 마시면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하는 나로서는, ‘작은 잔’도 부담스럽지만 그것에 담긴 ‘진한 커피’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그래도 손 대접에 게으르지 않는 그들의 마음만은 넉넉하게 받아오고 싶은 마음 굴뚝같다.

《커피 이야기》는 나무 그늘에서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자란 ‘특별한 커피’에 대한 이야기이다. 94페이지 분량의, 소설이라 하기에는 너무 짧고 서정시라고 하기엔 너무 긴 이 책은 커피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자 오마주이다.

농사꾼의 피를 이어받은 ‘조’는 미국 중북부 내륙평야 서부에 있는 네브래스카 주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부의 꿈을 키우며 성장했다. 봄이면 서툰 솜씨로 옥수수를 파종했고, 무더운 여름에는 건초를 만드느라 길고 힘든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소농들은 기술 수밖에 없었으니, 들판은 주차장과 주택단지, 유명 체인점이 들어선 상가로 변했다.

일상에 지친 조는 여행을 작정하고, 마침내 근사한 곳을 찾아냈다. ‘도미니카공화국-콜럼버스가 가장 좋아했던 땅’이 바로 그곳이다. 우연히 들린 한 카페 여주인에게 또 다시 ‘미시시피 강 동쪽 반구의 북쪽 절반을 통틀어 가장 높은 봉우리’를 소개받는다. 낡은 트럭을 타고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발견한 것은 거대한 커피 농장, 한 청년이 머릿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커피나무 옆에다 뭔가를 뿌리고 있다.

조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커피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는 미구엘과 조우한다. 나무 그늘을 이용해 옛날식으로 커피를 재배하는 미구엘 가족은 가난하다. 그러나 나무들이 햇볕과 비를 걸러주고 땅을 비옥하게 하며 침식을 막아주어 커피 묘목들에게 천연 보호막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주변 모든 농장이 거대 자본의 손에 넘어가도 이제껏 유혹을 참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대여섯 명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남은 휴가를 산에서 보내기로 한 조에게 미구엘은 커피 이야기를, 그 고단한 삶의 매듭들을 하나하나 풀어놓는다. 허나, 전통 커피농법은 계속 될 수 없다. 미구엘에게 먹이고 입힐 그리고 가르쳐야 할 아이들이 줄줄이 있었고, 거대 자본의 집요함은 날로 드세졌다. 그러나 조가 미구엘 농장에 붙은 땅을 조금 사면서 두 사람은 “꿈빠니아(회사)에 땅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고 나무를 잘라내지도 않을 것, 옛날 방식을 계속 지킬 것, 더 좋은 커피를 만들 것”을 약속한다.

낮에는 미구엘의 자상한 가르침 아래 조가 커피 농사법을 배우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 미구엘의 가족들이 자기 나라 글을 조에게서 글을 배운다. 아이들의 이름을 쓰게 되고, 문장을 씨름하는 동안 소농들을 하나둘 조와 미구엘 곁으로 모여든다. 이제 조합을 이루었고, 커피는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되었다.

지인 중에 ‘별다방’ 커피는 마시지 않는 이가 있다. 아프리카 아동 노동력을 착취하기 때문에 저 하나의 실천으로라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커피 이야기》는 작은 실천의 넘어 삶과 불공정한 커피 거래 시스템을 개선한 이들의 큰 실천을 담고 있다. 그러나 목소리는 크지 않다. 구호도 없다. 단지 그들이 어떻게 커피 농사를 짓는 이들과 더불어 살았는지 서정적인 언어로 보여줄 뿐이다. 구호가 난무하는 이 때, 삶의 변화시키는 작지만 큰 울림들을 만나고 싶다면 커피 한 잔과 함께 《커피 이야기》를 가까이 두어도 좋겠다. **한**



《커피 이야기》

줄리아 알버레스 지음 | 벨기스 라미레스 판화 | 송은경 옮김 | 나무심는사람 | 94쪽 | 값 6,800원